제과인들이여 용기를 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무엇을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데 그 순간 인간은 두가지 유형의 행태를 보이게 된다. 한 부류는 더욱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집념을 불태우고, 다른 한 부류는 자신의 뜻을 포기하여 가지 못한 길에 대한 회한을 안고 평생을 후회 속에서 살아간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저마다 주관과 식견을 가지고 삶의 목표를 정하겠지만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는 근면이란 한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근면 또한 건강의 뒷받침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아무리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야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외환위기로 시작된 IMF쇼크는 금융불안을 몰고왔고 실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져 급기야는 가계경제에도 짙은 먹구름을 몰고 왔다. 이로 인한 사회불안은 말할 것 없고 갑자기 달라지는 제반 사회현상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더위와 맞물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 지난해 12월 이후 생명의 전화에 쇄도한 1백47건의 상담전화중 1백20건 이상이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죽고 싶다' 거나 '살아 갈 의욕이 없다' 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어느 민간 경제연구소가 IMF 사태 이후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주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외환위기는 일단 넘어 갔지만 금융경색, 기업부도, 실업증가 등의 불안요인이 계속되어,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비가역적(非可逆的)으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또 사람마다 위기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불안 및 허탈' 에서 '좌절 및 분노' 를 거쳐 '체념 및 인정' 으로 넘어 가게 된다고 조사결과는 밝히고 있다.

지금 우리의 정신건강은 어떤 상태인가.

계속되는 경기부진과 외환위기의 혼란스런 상황이 제과인들에게도 큰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불안은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동업자간 화합의 붕괴이고,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좌절감이다.

언제까지 이 위기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심리적인 좌절감이 겹치게 되면 우리 역시 자신의 목표를 '가지못할 길' 로 치부해 버리고 회한 속에 살아가는 가련한 처지로 몰리고 말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용기가 가장 필요한 시점이다. 인생이 싸움이라면 용기는 승리를 위한 인간의 필수적인 덕목이다. 용기가 있는 사람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에서 그의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그러한 싸움에서 아무것도 지켜낼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삶의 현실에서의 모든 도전을 이겨내는 데는 늘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도 용기, 바로 그 꿋꿋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한다.